

일자리가 멈췄다... ‘공장 화재’ 금호타이어 노동자, 생계 ‘촉각’

공정 올스톱에 정규직·화물 노동자·하청 업체도 ‘스톱’
정규직 “희망 퇴직” 한국타이어, 금타는 과연 불안감
화물 노동자 “개인 사업자 신분... 휴업 수당 해당 안돼”
하청 업체 직원 “공장과 계약 해지 우려... 실직 걱정 커”

공장 화재로 가동 정지 장기화가 점차 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25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지역 노동계 초기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생산직의 전환 배치와 희망 퇴직 우려가 떠오르는 사이 화물 기사·협력 업체 직원들은 당장 일감·고용 안정 문제로 속앓이하고 있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들에게 공장 화재 후속 대책과 관련한 조합 차원의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을 위로 하면서 ▲사측의 일방적·강제적 고용 위협 방어와 차질없는 휴업 수당 지급 ▲이사회를 향한 공장 정상화 관련 조속 승인 등을 촉구했다. 조합의 입장문에는 과거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이후 벌어진 전개가 반복될 우려가 담겼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공장에 불이 나 2공장이 모두 타고 1공장이 생산을 멈췄다. 2공장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타이어는 재직 노동자 전체 823명 중 546명을 국내·외 타지역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남은 277명 중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58명을 제외한 219명에 대해서는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다. 사내 하청·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료 통보하면서 업체 직

원들이 정리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생산직 정규직들은 공장 가동이 멈춘 기간 동안 기본급의 70% 수준을 휴업 수당으로서 지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장 재건 계획이 서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타이어 화재 수습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형 파트에서 일하는 생산직 3년차 A씨는 “임금의 70%라도 보전받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고정 지출 해결에 당장 문제가 생겨 고민이 크다. 4대 보험에 가입돼있는 만큼 부업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타이어 화재 수습 이후 적용된 인력 배치가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토로했다.

공장과 연계된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도 직격타를 맞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의 계약해 타이어를 옮기는 화물 노동자들의 수는 모두 85명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각자 금호타이어와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장의 단체협약과 무관하다.

공장 가동 중단은 사실상 해당 기간 무급 휴직과 다를 바 없다.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기준 공장에 남은 타이어 재고를 40만 여 본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최장 열흘이면 모두 옮겨질 양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흘째인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2공장이 잿더미로 변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화물차 할부·보험비 납부 등 기본급 부담을 안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수업 불경기에 다른 화주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화물 노동자 B씨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용만 매달 400~500만원 상당이다. 발체 화물차를 팔고 버스 운전이나 나사렛 같은 기사들도 있다”며 “금호타이어나 더블스타 측의 최저생계비 지원 방안, 또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 상황 고용지원금 지급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장 가동 중단에 사내 하청·협력업체도 운영을 멈췄다. 공장 식당을 운영하던 하청업체는 사측으로부터 업무 정지 공고를 받았다. 업체에 소속된 33명도 무기한 휴직 상태지만 이렇다 할 고용 보장안

은 없다.

하청업체 직원 C씨는 “공장 식당 운영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식수 인원 규모에 따라 책정된다. 식수 인원이 없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업 수당조차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업체와 금호타이어 사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바로 실직하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에 남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위해 식당을 잠시 운영한다고 해도 그간 4조 3교대 식수 인원에 맞춰 운영돼온 당시보다 수입 규모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식당 노동자들의 근무도 조정되면서 정리 해고를 당하는 직원이 나올 수 있다”고 고소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공장 인근 아파트 4곳 주민 249명이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했다가 19일 오전 집으로 돌아왔다.

불은 화재 발생 76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22일 불씨가 다시 살아나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고용 규모는 노조 추산 2500여명(기능직 1853명, 사무직 413명, 비정규직 100명, 화물 노동자 85명)이다.

/신영길 기자

경기부진 지속될까?

생산·소비·투자 지표 주목

미국의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5월 26~30일)에는 산업활동과 가계경제, 재정, 인구와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매판매(-0.3%)와 설비투자(-0.9%), 건설기성(-2.7%)는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전산업생산은 0.9% 증가했다. 반도체(13.3%), 의약품(11.8%), 전자부품(7.8%) 등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기본관세(10%) 조치가 발효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29일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가계소득과 소비성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근로소득(2.3%), 사업소득(5.5%), 이전소득(5.6%)이 모두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391만원으로 2.5%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p 하락했다.

통계청은 28일 ‘2025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증가했다.

2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한 1만9370건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 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4월 국제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1분기까지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국제수입(93조3000억원)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올해 총 국제수입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진도율은 1분기 기준 24.4%에 그쳤다. 결산 실적 기준 세수진도율과 비교하면 2020년 24.3%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뉴시스

전남농업기술원, 기능성 표시제 양파즙 26일 출시

쓴맛 줄인 제조기술 개발... 무안 생산업체에 기술이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기능성 표시제 양파즙’을 새롭게 개발해 26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양파는 항산화 작용, 심혈관계 질환 예방, 혈당 저하, 항염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과 합형 화합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대표적 기능성 채소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제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양파즙의 90% 이상이 단일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소비자 기호

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쓴맛을 효과적으로 줄인 새로운 양파즙 제조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양파즙 제품을 선보인다.

신제품은 양파 특유의 강한 맛을 완화하는 동시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함께 배합해 맛의 균형을 살렸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활용해 혈당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과학적 기능성도 확보했다.

특히 제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기능성 문구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종팔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중국 충칭서 전남 농식품 수출 교두보

서부국제투자무역박람회서 농박 홍보·농식품 판촉활동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4일까지 5일간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7회 중국 서부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서 전남관을 운영,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와 전남 농식품 판촉활동을 펼쳐 중국 서부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지역 5개 농식품 기업이 함께한 ‘전남관’에선 30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대상은 충칭 시농업위원회, 충칭수출입협회, 외상투자 기업협회 등 대형 유통망 관계자다. 이들 중 다수는 전남 농식품 수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2025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자, 고구마, 흑하랑(기능성 상추) 등 전남 특화 품목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소개됐으며, 현지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어 향후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칭은 인구 3천200만 명 규모의 내륙 핵심 도시다. 중국 서부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 농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고, 유통망 확보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행란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유통

업체가 전남 농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 충칭을 중심으로 중국 서부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선 더 많은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글로벌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제농업박람회는 충칭시 농업위원회 등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은 물론 기술 홍보, 지자체 외교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케이(K)-농업’이란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